

국산 시멘트 중금속 자율관리기준 OK

(2009. 1. 7)

국내산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이 자율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탄재의 수은 함량은 국내산보다 수입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국내 시멘트 및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멘트의 경우 국내 11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함유된 6가크롬은 평균 10.45mg/kg, 최대 14.99mg/kg로 자율관리기준(20mg/kg)을 충족했다. 6가크롬의 자율관리기준은 지난해 30mg/kg에서 올해부터 일본과 같은 20mg/kg으로 강화됐다. 석탄재는 국내산 및 수입품의 중금속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으나 수입 석탄재 1개에서 수은이 국내 석탄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석탄재 중 비산재(플라이애시)가 바닥재(바텀애시)보다 중금속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석탄재의 중금속은 대체로 콘크리트 혼화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수은 함량은 석탄재 콘크리트 혼화재(평균 1.0mg/kg)가 석탄재(평균 0.6mg/kg)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용출분석 시험에서는 석탄재의 경우 국내 및 수입품 모두 6개 중금속 지정폐기물의 용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타이어는 석탄재보다 중금속 함량이 낮을 뿐 아니라 구리를 제외한 6개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및 수입석탄재의 중금속 함량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석탄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석탄재의 재활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멘트 내수 5000만톤 턱걸이

(2008. 1. 12)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멘트 내수가

5,000만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수입시멘트는 대폭 감소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쌍용양회 등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레미콘사 건설사 등에 공급한 시멘트는 모두 5,044만 4,000톤으로 전년에 비해 0.5%, 25만 7,000톤 감소했다. 이로써 시멘트 내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시멘트 내수는 지난 2003년 5,830만 2,000톤을 정점으로 2004년 5,494만 2,000톤, 2005년 4,628만 5,000톤, 2006년 4,838만 6,000톤, 2007년 5,080만톤 등 해마다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시멘트 내수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는 등 건설경기가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적으로 건설업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하반기부터는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부진의 여파가 본격화한 하반기부터는 지방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작년부터 건축허가면적이나 착공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올 한해 내수는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 시멘트는 198만 6,000톤으로 전년보다 무려 31.9%나 감소했다. 내수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낮은 톤당 6만원 이하로 낮게 형성된 데다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수출도 전년보다 27.1%나 감소한 300만 6,000톤에 그치며 부진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연이은 한파, 건자재 수요도 얼었다

(2009. 1. 19)

새해 들어 경기부진과 한파, 건설사 구조조정 바람 등의 영향으로 건자재 수요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시멘트 레미콘 등 기초자재 수요가 격감하며 자재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시멘트와 레미콘의 수요 감소

폭이 20~30%에 달하며 올 한 해 극심한 수요부진을 예고하고 있다. 시멘트 및 레미콘업계는 수요 감소폭이 당초 예상한 10%대를 훨씬 넘어섬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내수와 수출, 수입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생산업체들이 내수시장에 공급한 물량은 105만 5,0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4%나 감소했다. 수출은 작년보다 13.2% 감소한 9만 9,000톤에 그쳤다. 특히 수입은 무려 91.9%나 감소한 7,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미콘은 수도권의 수요가 작년보다 30.8% 감소한 86만 1,900m³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민수용이 31.4% 감소한 82만 8,600m³, 관수용이 9.6% 감소한 3만 3,200m³가 각각 출하됐다. 시멘트와 레미콘의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은 동절기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요인이다 경기 부진,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출하 자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초부터 불어닥친 한파로 레미콘 타설을 연기하는 현상이 늘어나며 상당량의 물량이 출하되지 못했다. 나아가 건설사 구조조정과 맞물려 부실징후가 보이는 현장에 대한 출하가 지연되거나 하향 조정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멘트업계 한 관계자는 “물량이 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감소폭이 의외로 크게 나타나 당황스럽다. 수도권은 그나마 최소한의 물량이 나가고 있지만 지방의 물량은 반토막이 났다”며 “물량감소의 주원인은 경기부진과 일기불순이다. 특히 올 들어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7일에 달하며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건설현장의 움직임이 둔화됐다. 레미콘 타설이 불가능할 정도로 날씨가 추워지자 현장의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시급한 실내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레미콘 타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고강도 콘크리트(PHC)과일 역시 전반적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대형 현장을 중심으로 물량

이 나가고 있으나 지방 현장은 거의 물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파일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단위 현장을 중심으로 물량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부진한 상태다. 특히 아파트 등 건축공사 현장이 없는 지방의 수요부진은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멘트업계 “유연탄 먼저 확보하라” (2009. 1. 20)

시멘트업계가 본격적인 원자재 연간공급계약을 앞두고 사실상 유연탄 확보경쟁에 돌입했다. 원가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유연탄은 시멘트업체들의 1년 농사를 좌우하는 주요 원자재로 통상적으로 매년 5~6월 사이에 중국 현지업체 등과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물량을 제때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 공급가격은 어느 수준이 될지 등을 파악하는 현지 시장조사와 업체와의 사전조율은 보통 2월부터 시작되며 이미 일부 업체는 계약 체결단계이거나 자재팀 중심으로 올해 유연탄가격 전망과 공급처 다양화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유연탄가격과 환율 폭등으로 벼랑끝에 몰린 시멘트업체들이 올해 유연탄 연간공급 계약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라프즈한라는 이미 유연탄 연간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음달부터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국영 4개사(차이나 콜, 쉐화, 산시, 민메탈) 등과 유연탄 확보를 위한 사전조율에 들어간다. 논의를 통해 가격과 공급물량에 대한 윤곽을 파악한 후 기존 거래선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공급처를 모색할지도 검토하게 된다. 라프즈한라는 지난해 12월부터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유연탄 수출 업체들과 계약 협상에 들어갔으며 현재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회사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70% 이상 수입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중국 현지로 인원을 급파해 거래선 재검토와 가격동향 분석에 나섰고 상황에 따라 거래처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쌍용양회와

아세아시멘트 등은 일단 경쟁 업체들의 유연탄 계약 조건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연간 계약에 돌입하는 아세아시멘트의 경우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둘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회사관계자는 “아직 일본, 대만 업체들이 유연탄 수입 계약을 하지 않아 이들의 협상 조건을 보고 유연탄 수입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는 유연탄 평균가격이 t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 역시 “올해 유연탄 수입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최대 50%, 최소 30%는 싸게 수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톤당 최고 200달러에서 작년 말 84달러까지 급락해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러나 불안정한 환율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에 육박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유연탄 연간 공급계약 체결 당시 환율은 1,000~1,050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최근 환율은 이보다 40% 가량 급등한 수준으로 유연탄 가격 하락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작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유연탄 가격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재 시장 “겨울이 너무 길다”

(2009. 2. 5)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로 올해 들어 시멘트와 철근 등 기초재 시장이 쾅쾅 얼어붙고 있다. 수요 감소폭이 20~30%에 달하는 등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기초재는 다른 자재 수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재 시장의 긴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쌍용양회 등 생산업체들이 내수시장에 공급한 시멘트는 218만 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26.6%(79만 1,000톤) 줄었다. 반면 대대적인 생산감축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시멘트 내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

멘트 수요 유발효과가 큰 아파트 등 주택건설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설연휴에 따른 휴무와 한파 등도 시멘트 출하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멘트업계는 1월의 출하부진은 예상했지만 수요 감소폭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신규 현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달 단행된 건설업계 1차 구조조정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어 수요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철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기로 제강사들이 1월 한달 동안 판매한 철근은 64만 500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줄었다. 이 가운데 내수는 57만 100톤에 그쳐 감소율이 33.3%에 달했다.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출은 7만 400톤으로 604% 늘었다. 제강사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감소폭이 크다”며 “다만 전월(작년 12월)에 비해서는 14.7%(내수 9.9%) 늘어난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도 61만 1,400톤으로 지난해 1월의 88만 4,900톤에 비해 30.9% 줄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설연휴 기간 건설현장이 쉬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너무 크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달 들어서도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1분기 수요가 최악의 상황을 보일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관계자도 “동절기라 신규현장이 드문 데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따라 가동을 중단하는 현장이 늘고 있어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달 말이 지나면 상반기의 수요패턴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물 장대화로 시멘트기술도 쑥쑥

(2009. 2. 10)

특수시멘트가 부상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을 비롯해 해상교량, 원자력발전소 등 구조물의 장대화로 건설시장이 이런 환경에 걸맞은 시멘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면서 특수시멘트의 수요도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

다. 건설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특수시멘트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시멘트는 강도, 내구성, 고유동성 등 콘크리트가 요구하는 특정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과 항균, 수중 불분리성 등 기능을 갖춘 제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나아가 초고층 아파트, 해상 장대교량, 원자력 발전소, 특수 구조물 등 특정 현장의 구조물에 적합한 제품들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수시멘트가 현장 맞춤형으로 공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100MPa의 초고강도가 요구되는 건설현장에는 100MPa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강한 내염해성이 요구되는 현장에는 내황산염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다. 뛰어난 강도와 내화학성이 필요한 현장에 일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물을 아무리 높고 미려하게 설계해도 시멘트 등 자재가 받쳐주지 않으면 건설이 불가능하다. 건설기술의 발전은 곧 자재기술의 발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특수시멘트는 이 같은 건설기술 발전의 통로 역할을 하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특수시멘트는 20종이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조강, 중용열, 내황산염, 저열 등 포틀랜드시멘트를 비롯해 혼합저발열시멘트, 방통시멘트, 초조강시멘트, 초속경시멘트, 마이크로시멘트, 지오크리트 등이 그것이다. 또 모르타르 및 연관제품으로는 무수축 모르타르, 보수재, 팽창재, 무수석고 등이 공급되고 있다. 저열포틀랜드(4종)시멘트는 수화에 의한 발열량을 최소화한 것으로 콘크리트의 최고 온도를 낮춘다. 뛰어난 장기강도와 내구성, 내황산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성능 AE 감수제의 효과가 최대로 발휘됨에 따라 물과 시멘트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고유동·고강도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도 있다. 아울러 건조수축이 적고 알칼리 골재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도 높다. 따라서 LNG 저장탱크를 비롯해 지하철 등 지하박스 구조물, 정수장 등 수처리 시설물, 콘크리트 댐, 철골·철근콘크리트 교각 등 매스콘크리트에 적합하다. 조강포틀랜드시멘트는 보통시멘트 7일 강도를 3일 만에 발휘한다. 구조물의 거푸집 탈

형시간을 당겨 공기를 단축하고 도로공사 시 조기에 교통을 개방할 수 있다. 특히 저온에서도 뛰어난 강도를 발휘하기 때문에 한중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교량 PC빔을 비롯해 홈관 전주 철도침목 등 콘크리트 2차 제품, 터널공사 슛크리트, 내화피복재 충전 기포콘크리트 등으로 사용된다. 초속경시멘트는 시공 후 3시간 만에 압축강도 20MPa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경화시 수화열이 발생해 저온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고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며 특히 응결조절을 사용할 경우 작업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교량상판 긴급보수, 한중콘크리트 공사, 구조물·교량이음매 보수공사, 기계초용 앵커볼트 충전, 활주로·항만·철도침목 긴급보수 등에 적합하다. 초조강시멘트는 콘크리트 타설 후 하루 만에 25~30MPa의 강도를 발휘한다. 급결제나 조강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후기 강도저하 등의 현상이 없이 장기적으로 강도를 유지한다. 사용방법이 일반 시멘트와 동일해 쉽게 시공할 수 있다. 지하철 철도레일 하부 자갈도상 개량, 어스앵커, 한중공사, 터널 및 연약지반 그라우팅 등에 사용되며 특히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토목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마이크로시멘트는 토양이나 지하수 등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주입재다. 평균입자 크기가 4 μ m로 용액형에 버금갈 정도로 침투성이 뛰어나며, 경화제를 사용하면 겔타입의 조절이 가능하다. 염화물이나 황산염에 대한 화학적 내구성이 1종 시멘트의 3배, 슬래그시멘트보다는 2배 이상 강하다. 댐·저수지 누수방지, 하천·호안·간척지 제방 등의 토사유출방지, 사면 슬라이딩시대의 지반안정, 구조물 부동침하 방지, 비축기지 압반 균열보강 등에 적합하다. 이 밖에 아파트 등의 바닥에 균열을 저감해주는 방통시멘트, 강도와 유동성을 갖춘 무수축 모르타르, 보수재, CSA 팽창재, 중성화 방지재 등이 각종 건설현장의 특수부위에 사용되고 있다. 특수시멘트 역시 일반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건설경기에 좋고 나쁨에 따라 수요가 움직인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향후 시장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시멘트처

림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는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교량의 길이가 길어지는 등 구조물의 장대화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구조물이 지닌 성능이나 기능도 한층 제고되며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시멘트는 이 같은 건설 시장의 흐름에 맞춰 다품종 소량의 패턴을 보이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특수시멘트가 사용되는 현장과 공급자간의 괴리도 드러나고 있다.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를 요구하는 현장과 소량생산에 따라 공급가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공급자간의 입장 차가 그것이다. 시멘트업계 한 관계자는 “특수시멘트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낮은 가격에 고성능·고기능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수시멘트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멘트사, 레미콘사, 시공사, 설계사 등 콘크리트와 관련된 업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시멘트를 사용함으로써 시멘트사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공사는 공기단축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가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10월말 준공

(2009. 2. 13)

동양시멘트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와 공동 추진하는 해양레일바이크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12일 삼척시와 동양시멘트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근덕면 궁촌~용화 5.45km 구간에 2~4인용 레일바이크 100대와 견인 철도 차량, 경관 역사, 유리공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해양레일바이크 사업에 착수해 10월말 준공 예정이다. 2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해양레일바이크 조성 사업은 지난해 3월 시와 동양그룹이 민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 준비를 계속해 오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난이 닥치면

서 동양이 투자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으나 이는 낭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 측은 해양레일바이크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이와 병행키로 한 용화~장호 1.2km 구간 해상에 곤돌라 40대와 해상 전망 데크 등을 설치하는 해상 곤돌라 사업(사업비 130억원 추정) 추진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상 곤돌라 사업도 오는 8월 착공,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우선 시 차원에서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시관계자는 “천혜의 해안 자연 경관을 이용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환선굴, 대금굴, 해신당공원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삼척 관광 산업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내우외환’ 시멘트업계, ‘악’ 소리만 난다

(2009. 2. 14)

시멘트업계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안에서는 적자 누적에 따른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고 있다. 밖에서는 환경문제 개선과 가격인상 철회 등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및 수요업계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업계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의 체감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 업계는 현재의 처한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의 생사가 갈릴 정도로 위험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멘트업계가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으나 주변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수요 부진과 낮은 내수가격 등으로 인한 적자누적에 시달리고 있다. 적정한 판매단가 확보라는 업계 최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나 번번이 한계를 드러냈다. 레미콘 등 수요업계의 반발을 제대로 무마하지 못한 데다 설상가상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속력 부족을 보였다. 특히 업계의 결속력 부족은 수요업계와의 가격 조정 시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 저단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한 후 시멘트업체가 이를 판매 단가에 반영시키는 틈도 길어졌다. 또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폭에 비해 판매단가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가격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심화되는 양상을 띠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업체들의 경영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일과 아세아를 제외한 전 업체들의 당기 순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일과 아세아는 순익은 났지만 순익규모는 전년의 절반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2006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업체의 누적적자는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들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등 신용부문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이 시멘트의 유해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이슈화하고 있다. 잊혀질 만하면 한번씩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국정감사 때마다 시멘트의 환경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체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방송토론회나 시사 프로그램, 과천정부청사 기자간담회 등에 나가 반대이론을 펼치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는 업계 스스로 자율기준을 만들어 매달 이행결과를 공개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 자체가 워낙 폭발성이 강해 언제 다시 불거져 나올지 모른다. 가격문제를 둘러싼 수요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뀌었다. 당연히 시장의 주도권이 수요업체로 넘어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레미콘 등 수요업계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경기 부진도 부담이다. 건설경기는 시멘트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올해에는 내수가 5,000만톤을 크게 밀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망이 어둡다. 게다가 유가, 유연탄가격 등 생산원가와 관계가 깊은 제비용의 변동폭도 심하다. 시멘트업체는 올해가 업계의 생존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적자를 기록한다면 공장문을 닫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멘트업체는 앞으로 현안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업계 전체가 벼랑 끝에서 있는 형국”이라며 “이제부터는 현안들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는 등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현재 추진 중인 판매가격 인상에도 이런 인식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조조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시멘트업계의 행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수도권 레미콘 수요 ‘뚝’

(2009. 2. 16)

레미콘 수요가 건설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출하 감소율이 26%를 넘어서며 한파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5일 레미콘공업협회(회장 김호)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 공급된 레미콘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3%, 71만 8,200m³가 감소한 201만 4,400m³에 그쳤다. 이 같은 수도권 레미콘의 지난달 수요 감소율은 시멘트의 내수 감소율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부문별로는 민수용이 192만 9,000m³로 27.5% 감소한 반면 관수용은 8만 5,300m³로 17.5% 증가했다. 아파트 등 민간건설의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공공공사가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생산업체들의 하루 평균 출하량도 17.4% 감소한 8만 500m³에 불과했다. 기간 중 공장 가동일은 25일로 작년보다 3일 짧았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의 출하가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서울 중심권을 비롯해 여주·인천, 경기남부, 안산·시화, 안양, 수원·화성 등 6개 권역은 31.5~46.6%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동안 수요가 활기를 띠었던 인천·부천, 고양·파주권도 각각

9.6%, 3.3% 감소했다. 이처럼 수도권 레미콘 수요가 감소한 것은 건설경기 부진에다 건설사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물량주문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연초 한파가 불어닥치고 설 명절 연휴가 끼인 것도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관련업계는 이런 수요부진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가 기온이 올라가고 현장이 안정을 찾는 3월부터는 서서히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쌍용양회 참여 컨소시엄, 유진 인천공장 인수 (2009. 2. 25)

쌍용양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유진기업의 인천시멘트 공장을 인수했다. 쌍용양회는 25일 “쌍용양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유진기업의 인천시멘트 공장(건물 및 토지 포함)을 700억원 수준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쌍용양회는 인수자금의 20~30% 정도를, 모 재무적 투자자(FI)가 나머지 인수자금을 부담할 예정”이라며 “중도금을 납입한 뒤인 3월 중순경에 전체 컨소시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매각하는 인천시멘트 공장은 유진그룹의 기초소재가 보유했던 것으로 그동안 슬래그파우더(콘크리트 혼합재료)를 생산해 왔다. 슬래그파우더는 제철소의 용광로(고로)에서 선철 제조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한 것으로 시멘트와 유사한 화학성분을 갖고 있다. 쌍용양회는 슬래그 파우더를 활용한 슬래그 시멘트 생산 등 시멘트 분야 영역 확대를 위해 이번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진기업은 이번 인천시멘트 공장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재무개선 효과를 보게 됐다.

시멘트 수요 감소 예상보다 적었다 (2009. 3. 6)

시멘트 수요가 회복되나, 올해 들어 시멘트 수요

의 감소폭이 관련업계의 예상치를 크게 밀돌자 시멘트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게다가 수입이 환율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자 시황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보임에 따라 올 한해 시멘트 수요를 작년보다 500만여톤 줄어든 4,500만톤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이런 분석대로라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요는 450만톤 안팎이 돼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생산업체들이 내수시장에 공급한 시멘트는 526만 1,000톤에 달하며 500만톤 대를 거뜰히 돌파했다. 감소폭이 5.2%에 그친 것이다. 연초 2개월 동안의 수요를 보면 한해 동안의 수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멘트업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멘트 내수는 지난 1월의 경우 감소폭이 무려 26.6%에 달하며 관련업계를 긴장시켰으나 2월에는 307만 1,000톤이 나가며 전년 동월 대비 19.4%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1~15일까지의 단기수요는 증가폭이 무려 46.5%에 달했다. 내수 감소폭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민간건축의 극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사업 조기발주 등의 영향으로 수요심리가 조기에 안정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시멘트업계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작아 다행이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공공사업이 붐을 이루면서 수요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말 올 수요를 전망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내다본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2개월 동안의 수요만을 놓고 한해 시멘트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기에선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년과는 달리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난 1월의 지표가 예상외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건설경기가 꿈쩍도 않는 상황에서 시멘트 시황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힌다. 실제로 지난 2개월간 출하된 시멘트 대부분이 수도권 현장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요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며, 한해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달의 수요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수입 시멘트 양이 급감해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현재까지 중국, 일본 등에서 들어온 시멘트는 9만 7,000톤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2.4%나 감소한 것이다. 월별 감소율은 1월 80.7%, 2월 70.3%를 각각 기록했다. 시멘트 수입이 급감한 것은 환율이 급등하고 내수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오르내리며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달러당 환율 1,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보다 톤당 1만 5,0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업체들의 내수시장 공급가격도 낮아 사실상 내수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관련업계는 외환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한 올 해 시멘트 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외국산에 의존했던 업체들이 수입을 기피하며 국내산 시멘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슬래그시멘트업체들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고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생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123만 3,000톤으로 작년에 비해 26.3% 감소했다. 업체들이 생산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감소가 예상외로 적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지금의 재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당분간 재고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의 봄 언제오나’ PHC 파일의 한숨 (2009. 3. 11)

파일업계가 건설경기 불황을 실감하고 있다. 고강도 콘크리트(PHC)파일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까닭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의 출하와 생산이 크게 감소하

고 있는 가운데 재고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동향은 콘크리트파일의 출하실적이 향후 3~6개월 후의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자재의 수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출하된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은 64만 8,000톤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8%, 6만 4,800톤이나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4·3분기에는 철근, 레미콘 등 기초자재의 수요도 비슷한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파일의 수요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건설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이 혼란함에 따라 생산업체들이 신용도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출하한 것도 한몫했다. 파일업계는 상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건설업계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영업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건설경기도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파일업계 관계자는 “건설시장이 혼란 속에 있어 생산업체들의 영업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예년처럼 주문을 받는 즉시 출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상반기 동안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권을 제외하고는 개점휴업상태다. 특히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대구 등 일부 내륙지역의 경우 거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중심권의 경우 우면 세곡신정지구 등 일부 지역에 물량이 투입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침체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인천·경기지역은 꾸준하게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인천지역은 청라지구를 비롯해 송도신도시, 논현지구 등에서 대규모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김포지구를 비롯해 문산 선유지구, 부천 범박지구, 수원 호매실, 남양주 민락지구 등에 물량이 투입되고 있거나 곧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이들 지구의 경우 현장당 소요물량이 3만톤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올 한해 파일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생산은 69만 9,8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5%, 10만 8,800톤 감소한 반면 재고는 53만 9,100톤으로 13.0%, 6만 2,300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급등에 시멘트 수입 급감

(2009. 3. 17)

시멘트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줄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시멘트의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물량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내수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 감소한 526만 1,000톤이 출하되며 3월부터는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달 들어 수요는 전년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시멘트사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하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 수요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중국,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물량은 9만 7,000톤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4%나 감소한 것이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들어온 물량이 3만 2,000여톤으로 지난해의 3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멘트 수입이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환율급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중국이나 일본 등의 내수가격에 비해 내수가격이 낮은 것도 수입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업계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수입물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올랐던 환율이 낮아지고 내수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하반기부터 수입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멘트업계 다른 관계자는 “수입시장의 최대변수는 환율과 내수가격”이라며 “환율이 하향안정되고 내수가격이 오를 경우 수입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출은 지난달 말까지 2.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내수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달 들어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미국, 유럽 등의 시멘트제조업체들이 수출에 주력하며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시멘트회사들이 수송거리가 가까운 아프리카 등 한국의 신규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공업협회장에

백한기 쌍용레미콘대표

(2009. 3. 18)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일 정기 총회를 열고 백한기 쌍용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백한기 회장은 1978년 한양대를 졸업하고 쌍용양회에 입사한 후 쌍용양회 시멘트팀장, 레미콘영업본부장을 거쳐 현재 쌍용레미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983년 8월 창립된 지식경제부 관할 협회이며, 현재 전국 29개 주요 레미콘기업들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